

차례



31
36
45
185
233
256
333
417
467

차례

일러두기 · 4

나의 연극 노트 · 6

이주홍의 극문학 세계와 그 의미 · 13

대차 31

집(좁) 55

청춘계도(청춘기) 85

열풍 185

호반의 집 233

탈선추향전 305

낙성의 달(지새는 성두) 363

아버지는 사람이 저래 417

봄 없는 마을 467

극작품 목록 및 공연보 · 527

제 1 권

이주홍
극문학
전집

희곡 1

정봉석
엮음

세종출판사

이주홍문학재단

이주홍 극문학 전집

제 1 권 | 희곡 1

정봉석 엮음



세종출판사

제 2 권

이주홍
극문학
전집

희곡 ②

정봉석
역음

세종출판사

이주홍문학재단

이주홍 극문학 전집

제 2 권 | 희곡 ②

정봉석 역음



세종출판사

제 3 권

이주홍
극문학
전집

아동극·시나리오

정봉석
엮음

세종출판사

이주홍문학재단

이주홍 극문학 전집

제 3 권 | 아동극 · 시나리오

정봉석 엮음



세종출판사

차례

5. 일본이 번역의 경우, 한자로 되어 있는 일본 이름과 지명은 일본식으로
 [이오 삼위 차변 호의정수을찾아찾에 수로대그물물음출출물물물
 일러두기 · 4
 나의 연극 노트 · 6
 이주홍의 극문학 세계와 그 의미 · 13

■ 아동극 ■

뱀사람 · 말사람 33
 특기눈알 45
 젊은 통장사 61
 도화시간 71
 개떡 79
 똥똥이의 재판 89
 연이야 울지마 111
 못나도 울 엄마 125

■ 시나리오 ■

전원회상곡 141
 피리부는 소년 307
 극작품 목록 및 공연보 · 393

차례

나비의 풍속	31
춘향전	69
신부추방	161
산울림(구원의 곡)	215
성웅 이순신	275
뒷골목(잃어버린 막간)	387
따분한 밤	439
꼭꼬리를 기다리는 집	443
시궁창에도 꽃은 핀다	499
민족의 태양	527
방자 부활하셨네	543
극작품 목록 및 공연보	559

나의 演劇 연극 노트

이주홍

戲曲集의 劇本을 만다면 자연 이런 作品目錄의 品목 같은 게 필요 없겠지만, 지금은 그런 계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의 資料를 위해서 겸 일단 演劇分野에서 일해 온 것을 회상해 본다.

맨 처음으로 연극을 해본 것은 열여섯 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. 脚本^{각본}은 내가 손수 쓴 單幕^{단막}의 <病母^{병모}>라는 것으로서, 이를테면 눈물을 흘려야 하는 悲劇^{비극}의 物^물이었는데, 함께 出演^{출연}한 배우는 이웃에 있는 같은 나이의 친구 한 사람. 幕^막은 담요 장은 木枕^{목침}을 두드리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었으나, 보아주는 觀客^{관객}의 한 사람조차 없는 외로운 出發^{출발} 公演^{공연}이었다. 배우도 두 사람 만으로 전모지라서 나는 병든 어머니로 扮裝^{분장}해 누워 있다가 또 금방 일어나 그 병든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아들도 되어야 했다—一人二役^{일인이역}이었다. 물론 이것은 어른들 몰래 방안에서 가만히 해본 소꿉연극이었던 것이지만, 내가 연극에 흥미를 갖게 된 직접·간접의 영향은 그 당시 地方巡廻^{지방순회}를 하던 舊劇^{구극}의 協律社^{협률사}와 新派^{신파}의 金기浪^{김소랑}·林陶山^{임도산}一行^{일행}들에서 받았던 것이었다. 누가 쓴 短篇^{단편}이었는지 지금은 생각이 안나나, 잡지 『開闢^{개벽}』에 나 있는 <病友^{병우}>라는 작품을 읽고서 크게 감동을 한 나머지 나는 그것을 본 따 <病母^{병모}>를 썼었다. 가난 속에서는 나무꾼 아이와 병든 어머니의 슬픔을 그린 것인데, 이것이 글로 쓴 내 작품으로서의 第一號^{제1호}가 되는 셈이다.

다음은 十二歲^{12세} 전후 일본의 廣島^{히로시마}에서 僑胞^{교포} 친구들과 그곳 公會^{공회}의 演劇^{연극}을 빌려 했던 것으로, 脚本^{각본}은 물론 내가 쓴 것이었으나

내용도 제목도 지금은 까맣고,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演技^{연기}의 中^중에 假髮^{가발}의 수염이 떨어져서 웃음을 샀던 일과, 내용이 불온하다 해서 臨席^{림석} 警官^{경찰관}이 廣島^{히로시마}에서 떠나가라고 추방명령을 했던 두가지 일이 있을 뿐이다.

二十七, 八歲^{7, 8세} 전후, 東京^{동경}에서 돌아와 고향의 陝川^{함천}에 머물러 있는 동안인 『朝鮮文學^{조선문학}』誌^지 같은 데에 小說^{소설}을 발표하는 한편에 演劇^{연극}도 두세 회회의 公演^{공연}을 가졌다.

그때는 全國^{전국}의 農民組合^{농민조합} 運動^{운동}이 澎湃^{팽배}해 있었기 때문에 연극의 내용도 자연 투쟁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. 그래서 草契^{초계}에서 시작해 陝川^{함천}에서 公演^{공연}을 마치고 다시 釜山^{부산}으로 巡迴^{순회}하려던 도중에 경찰의 중지를 받고 그만두어버렸다.

이때에 썼던 脚本^{각본}도 하나는 洛東江^{낙동강}을 배경으로 한 <윤침지>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나, 남은 한 편은 滿洲^{만주}가 배경이었던 것만 생각날 뿐 題名^{제목}은 떠오르지 않는다.

二十四, 五歲^{24, 5세} 무렵 그때가 나의 半年間^{반년간} 가장 고되던 고비였다. 失戀^{실연}과 失職^{실직}이 동시에 와, 밀려 있는 밤잠 때문에 下宿^{하숙}으로는 들 어가지도 못하고 보통 한두 때는 밤을 굶으면서 잠도 이집 저집으로가 구걸해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. 尹逢春^{윤봉춘} 씨가 관계하는 漢陽映畫社^{한양映畫社} 演藝^{연예}사에도 職^직은 두고 있었지만, 월급 한 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써 준 시나리오도 映畫^{영화}가 데면데면하고 돈 나올 기억이 전연 막막한데, 앞친데 뒷친다는 격으로 고향에서는 열일곱 살 나는 내 누이동생이 장 절부사를 앓다가 죽었다는 전보가 오고, 곧 또 그 뒤를 이어서 지금은 어느 여학교의 교사로 있는 처아이가 昌均^{창균}도 같은 병으로 죽었다는 전보가 왔지만, 치비가 없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尹逢春^{윤봉춘} 씨

1) 야로(夜鷗)의 오기인 듯; 야로는 함천군 내의 한 면.

철 · 崔元植^{원익} · 朴志雄^{지웅} · 李成燦^{성찬} · 梁廣南^{광남} · 裴俊鎬^준
호 · 朴海息^{해식} · 金東立^{동립} 등의 演技^{연기}는 學生^{학생}演技^{연기}의 水準^{수준}을 넘은 훌륭한 것이었다. 그때에 쓴 戲曲^{희곡}은 <青春記^{청춘기}>로부터 시작해서 <湖脚^{호박}호반의 집> · <脫線^{탈선}春香傳^{춘향전}> · <아버지는 사람이 저래>, 그리고 武者小路實篤^{무사노로지 사에이노}의 <愛慾^{애욕}애욕>을 번안한 <봄 없는 마을> 등이었으나, 어느 각본에서도 主役^{주역}역을 맡아본 朴在容^{박재용}은 天才^{천재}의 劇才^{극재}적인 演技^{연기}를 보여주어 보는 사람마다 그의 將來^{미래}에 대해 크게 촉망하고 있었던 것이다. 그때는 解放^{해방}이 뒤 얼마 되지 않은 때라 電氣^{전기}事情^{사정} 전기가 이주 나빠서 어느 劇場^{극장}에서 할 때도 거진 촛불이나 가스불로서 연극을 해나간 형편이었다. <脫線^{탈선}春香傳^{춘향전}>은 지금도 가끔 上演^{상연}을 보는 喜劇^{희극}으로 六 · 二五 당시에는 朴在容 · 朴楨五 · 金東立 등이 다니면서 長期間^{장기간}의 公演^{공연}을 했다. 이 외에도 隨時隨處^{수시수처}로 많이 上演^{상연}했으니, 回數^{회수}로만 말한다면 이만큼 많이 上演^{상연}된 戲曲^{희곡}도 별반 흔하지 않을 것 같다. 演劇^{연극}의 熱^열에 있어서는 東高^{동고}의 이웃에 있는 東來女^{동래여}도 지기 않았다. 이 학교를 위해서 쓴 것은 東高^{동고}와 경쟁을 하듯 同期間^{동기간}에 兩校^{양교}에서 <아버지는 사람이 저래>를 公演^{공연}했던 것도 흥미 있는 일이었지만, <나비의 風俗^{풍속}>도 큰 成功^{성공}이었다. 지금 까지도 생생하게 그 모습이 떠오르는 秋進^{추진}順^순진은 · 尹寶媛^{윤보원} · 鄭石順^{정석순} · 李性제^{이성화} · 高英子^{고영자}들은 현재는 다 두셋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터이지만, 정말 매끈하고 餘薰^{여훈}이 있는 좋은 演技^{연기}들이었다. 東女^{동여}도 다음에는 釜山女高^{부산여고}와 釜山女商^{부산여상고}가 있다. 釜山女商^{부산여상고}를 위해서 쓴 것은 <落城^{낙성}낙성의 달>, 釜女商^{부녀상고}를 위해서 쓴 것은 <님이 부르신다면> · <달빛은 이슬처럼> · <春香傳^{춘향전}향전> · <피꼬리 오는 집>이었다.

- 2) 작품 연보 및 공연 대본 등을 통해 확인한 바, 부산여고의 오기인 듯.
- 3) 釜山女商^{부산여상고}의 오기인 듯

이밖에 鶴山女中^{학산여중}을 위해서 쓴 것으로는 <봄의 스케취>가 있는데, 南鮮女高^{남선여고}에서는 <湖脚^{호박}호반의 집>을 오 페 라廳^{본대본}으로 고쳐서 규모를 달리해 큰 성과를 볼 수 있었다. 靑門劇會^{청문극회}를 조직하고 나서 創立^{창립}공연 때 올린 것은 釜山日報^{부산일보}에 連載^{연재}했던 <久遠^{구원}원인의 곡목>이었다. 이것은 詩^시와 音樂^{음악}과 演劇^{연극}을 혼합해 엮은 한 새 試圖^{시도}로서 그 趣意^{의의}를 전연 異色^{이색}이게 한 것이었다. 靑門劇會에서는 第二會^{제2회} 公演^{공연}으로 <青春期^{청춘기}>를 改題^{개제} · 改作^{개작}한 <青春系圖^{청춘계도}>를 올렸다. 그리고 釜商高^{부상고}에서는 <落城^{낙성}낙성의 달>을 <지새는 坡頭^{사두}>로 改題^{개제}해 上演^{상연}했다.

東高^{동고}에서 관록을 보이면 朴在容 · 朴楨五 · 朴海息 · 張秀徹 · 裴俊鎬 · 李成燦 · 崔元植 · 金春吉 등은 모두 내가 옮겨와 있는 水產大學^{수산대학}으로 入學^{입학}해 와서 演劇部^{연극부}를 조직하고 다시 布陣^{부진}을 하는데, 여기에 釜高^{부고}에서 演劇^{연극}을 하고 있었던 朴相英^{박상영}과 慶高^{경고}에서 온 卞圭君^{변규군}이 모태어와 水大^{수대}의 演劇部^{연극부}를 強化^{강화}했다. 出發^{출발}의 첫 公演^{공연}은 中央劇場^{중앙극장}에서 올린 <新婦^{신부}追放^{추방}>이었다. 이것은 卞寬^{박우찬}의 一幕^{일막}을 사이에 다 넣고 만든 것으로서, 그 뒤 慶南女高^{경남여고}의 卒業生^{졸업생}에 의해서도 한 번 上演^{상연}되었던 일이 있다. 水大^{수대}演劇^{연극}의 第二回^{제2회} 公演^{공연}으로선 民主新報^{민주신보} 費^비의 <聖雄^{성웅}李舜臣^{이순신}>이 예정되어 있어 연습까지도 시작이 되었던 것이나, 經費^{경비} 관계로 해서 도중에 중단이 되고 말았다.

한편 釜山師範大學^{부산사범대학}에선 『文筆^{문필}』에 掲載^{개재}했던 <그늘진 地域^{지역}>을 上演^{상연}했다. 이것은 최초로 三 · 一紀念^{3·1기념}의 文人^{문인}劇^극을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썼던 것인데,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 듯 演技^{연기}를 맡은 文人^{문인}들이 잘 모여주지 않은 탓으로 해서 못하고 있던 것을 師

- 4) 회의 오기인 듯.

대에서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. 이 戲曲의 演出은 卞玄圭君 변현규군이 맡아서 했다.

兒童劇의 동극으로선 『兒童文學』에 게재했던 <토끼의 가정>을 來城國 民校 내성국민교에서, 傳來童話 童話를 素材로 한 <연이야 울지마>는 HKU의 聲優 들로 중심이 된 立體劇場 立체극장에서 上演해 크게 好評을 받았다. 이의 演出은 薛嶺聲(相奵)君이 맡아서 해 樣式化 양식화된 手法수법인 점에서 特色특색이 있는 것이나, 지금까지에 이어온 學生劇의 發展史 발전사에 있어서는 南相協 南상협 · 鄭鎮業 鄭진업 · 金守欽 金수진 등의 功勞공로가 絶大絶대했다. 그대에 연극 공부하던 학생으로서 현재 사회에 나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卞玄圭 · 梁廣南 · 薛嶺 · 金春吉 諸君 諸君이들이다. 金東立 金동립만은 小說소설을 쓰고 있는 터이고.

最近最近에 쓴 것에는, 釜山日報 釜山인보사가 主催주최하는 「嶺南嶺南 學生演劇會 學生演劇會」을 위해 쓴 <시공창에도 꽃은 핀다>가 있다. 現代現代인 風俗風俗의 虛點虛점의 虛點虛점을 짚은 것으로 水大 · 釜山女大 釜山여대와 함께 이 戲曲을 올렸던 釜山敎大 釜山교대가 優勝優勝을 해, 아직 演劇의 歷史歷史도 없던 학교였는데 하고 市民市民들을 놀라게 했다. 이의 演出은 同大學 同大學대의 國文學敎授 國文學敎授 金永松氏 金永松氏가 맡아서 했는데, 이 일을 契機契機로 해 一躍一躍의 유명해졌다. 그러나 이 勝利勝利는 主因主因이 末端末端의 技術技術에 있었던 게 아니라 演劇의 教育的 教育的 姿勢姿勢를 健實健實하게 잡고 그나간 결과로서였다. 人間人間 以前以前에 演劇이 있을 수 없다. 먼저 人間人間을 제대로 교육한 기초 위에서만이 藝術藝術의 美은 비로소 展開開化개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, 이 眞理眞理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할 도리가 없다.

1966년 9월 30일

이주홍제3수필집 『뒷골목의 落書낙서』(을유문화사) 全載全載

이주홍의 극문학 세계와 그 의미

정봉석

1. 극작의 전사(前史)

향파(向波) 이주홍(李周洪) (1906~1987)은 일반적으로 이동문학가 및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다. 그에 비해 그가 해방 이후 황무지와 다름없었던 부산 연극의 현장을 주도적으로 개척하였던 극작가이자 연극인으로서 이루어놓았던 선구적 업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. 그리고 그가 1930년대 전반기에 이미 이동극의 영역을 선구적으로 개척하였던 극작가 중 한 명이며, 또한 그를 통해 일제와 계급모순에 저항하였던 사실 또한 안타깝게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듯하다.

이처럼 극작가로서 한국 이동극계와 부산 연극계에 선구적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¹⁾ 그 면모가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

1) 간혹 망월암(望月庵) 여인초(旅人草) 등의 필명을 쓰기도 하였다.

2) 아래의 참고문헌들을 참조하여 향파의 극문학 작품 목록과 공연보를 정리하였는 바, 각 권의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람.

이주홍, 「나의 연극 노트」, 『뒷골목의 낙서』, 을유문화사, 1966, 265-266쪽.

김동규, 「부산연극사」, 『부산시사』 4, 부산시, 1991.

김문홍, 「부산 창작회곡 50년사」, 부산문인협회 편, 『부산문학사』, 소문출판사, 1997, 328-361쪽.

부산광역시 남구문인회 편, 「향파이주홍선생의 문학세계」, 『남주문학』 7, 생각하는 사람들, 1999, 45-86쪽.

번호	작품명	발표지 및 구단명	연도	장르	비고
50	그늘진 지역			희곡	*미발굴 『문필』지에 게재하고 부산사범대학(변현구 연출)에서 공연하였음
51	봄의 스케취			희곡	*미발굴 화산역중 공연을 위한 작품

이주홍 극문학 전집

제1권 희곡 1

인쇄일 2006년 5월 23일
발행일 2006년 5월 25일

지은이 이주홍문화재단
역은이 정 분 석
펴낸이 이 길 안
펴낸곳 세 종 출 판 사

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27가 72-26번지

전화 463-5898, 253-2213~5

팩스 248-4880

E-mail sip1@chollian.net

등록 제02-01-96

ISBN 89-7943-914-8-03810

ISBN 89-7943-917-2(전1권)

값 25,000 원

* 이 책의 무단 전재 및 복제행위는
저작권법에 의거,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
이 책은 부산광역시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습니다.